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의응답]

Q. 교류는 흥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한중일 간 가벼운 교류에서 시작하더라도 역사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궈딩핑 흥미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한중일 관계에 민감한 이슈가 많지만 꼭 덮어 두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 먼저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슈에서 시작해서 좀 더 관계가 성숙해지면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한중일 교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한중일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중일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선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정하면 상호이해가 더 용이해질 것이다.

A. 오노 다모쓰 상대국의 역사 문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에서도 참가자들이 교류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국의 역사 및 문화를 가르친 후 상대 국가에 가서 교류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공통점을 찾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부분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A. 정진환 연령과 세대에 따른 역사문제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 성인들이 기피하는 이슈들도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한다. 민감한 이슈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

A. 정구종 지금까지 연사들의 발언에서 공통된 주장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고, 중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A. 이종헌(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0년 5월 29일 제주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성과인 3국협력비전 2020(Trilateral Vision 2020)이 채택됐다. 이것은 2020년까지의 한중일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 문서로서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첫째, 아직도 한중일 3국 협력이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3국의 리더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하는 데 계속해서 3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협력, 공동의 개발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3국 간의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 교류는 동북아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중일 3국관계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이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편견 없이 열린 생각을 가진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개국이 꾸는 꿈은 꿈으로 그치지만 3개국이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A. 정구종 2005년 시작된 한중일문화교류포럼에서는 한중일 어린이들이 3개국 언어로 '우리들은 미래'라는 주제로 합창한다. 어린이들이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한중일 3국도 앞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

Keywords
한중일, 청소년 교류, 캠퍼스아시아, 어린이 동화 교류, 한중일 대학생 3국 협력 포럼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한중일 청소년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 정기화가 필요함.
- 대학생 위주의 교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초등학생, 중고생 등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단발성 교류에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과 문화의 역할

APCEIU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좌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
기조연설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인력개발문화조정장관
하맛 바 감비아 문화관광부 장관
에두아르도 멘데스 엘 시스테마 대표이사
토론 **우마이르 무쉬타크** 파키스탄 문화단체 '리틀아트'커뮤니케이션 팀장
린 나세르얄라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지원단체 야파문화센터 활동가
다니엘 린데만 JTBC 〈비정상회담〉 패널
신화정 재주도좋아 대표
정리 **강지형** 유네스코아태교육원 전문관

이성훈 이번 세션에는 아프리카, 남미, 서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청년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다양성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번 세션은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가 문화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럼을 시작하겠다.

푸안 마하라니 청년은 국가 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미래 원동력이다. 청년의 특징은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청년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청년들에게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이런 변화가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장미빛 미래만 보이지 않는다. 청년들은 마약, 경쟁, 소비주의, 문화의 훼손, 인신매매, 가난 등의 환경과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은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갈등을 종종 불러일으키곤 한다. 사회·문화·정치·경제적으로 기반이 약한 경쟁은 개인, 집단, 국가의 실패와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실패와 분열은 좌절과 비관론, 급진주의, 범죄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청년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청년개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교육을 관리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청년들은 관용과 상호이해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인정 및 인류애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줘야 한다. 문명의 발전을 위해 그 나라 고유의 문화는 청년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청년 개발은 다양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를 발급하여 1900만명의

학생들에게 보편 교육의 혜택을 제공했다. 고등교육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3만 명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직업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결연을 맺어 저소득층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 개의 섬에 700여 개의 언어와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다.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판차실라'라는 이념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이 세계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에너지를 발생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의 관습을 더 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청년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세계문명은 고대에서부터 중세시대, 모던 시대 그리고 T혁명(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Tourism)이라 부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혁명의 물결을 겪어 왔다. 지금은 청년들의 에너지로 새로운 혁명의 물결을 일으켜야 할 때다. 이 혁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중심이 돼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는 청년의 역동적인 에너지 강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사람들이 자부심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분쟁과 긴장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세상은 정의와 번영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으며, 인도주의가 모든 곳에서 발현되는 세상이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한다. 젊은 이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좀 더 발전되고 고귀한 문명 사회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맛 바 청년은 인간의 초기 성장상태로, 18~35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물론 마음이 젊은 사람이 청년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문화란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음식, 주거, 종교, 의복 등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문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된다.

감비아는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음악, 춤, 드라마, 스토리텔링 등 문화적 자원을 사회 발전과 직업창출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감비아 인구의 61%가 24세 이하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 등으로 이주한다.

얼마 전 감비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대선 후 패배한 대통령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때 청년과 문화의 역할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감비아에서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해 7개 정당이 모여 정당 연합을 만들었지만 모든 활동 수단을 독재자에게 빼앗기고 언론까지 통제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소셜미디어, 벽화, 거리 집회, 유세 등을 통해서 정당 연합을 지원했고 독재자의 부당함을 알렸다. 많은 청년들이 감옥에 갇혔고 위협을 당했지만 희생을 무릅쓰고 변혁을 이끌어 냈다. 결국 2017년 1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독재자는 39%밖에 득표하지 못했고 패배했다. 감비아는 이제 민주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의 발전에 참여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관광을 통해 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해 평화 확산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청년과 문화가 이러한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에두아르도 멘데스 엘 시스테마는 음악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팀워크를 중시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에 설립, 음악을 통해서 자치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 특히 오케스트라, 합창단에서 얻는 공동체 의식, 잠재력 개발을 통해 본인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다. 엘 시스테마는 그렇게 음악을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일원이 되는 긍정적인 경험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엘 시스테마는 뉴클레어라는 공동체 조직을 통해 사회적 공존을 가르친다. 이런 공동체 달성을 위해 청년들이 리더가 되어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폭력을 누그러뜨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심어 준다. 이는 문제 행동의 감소로 이어지고 건강한 경쟁을 유도한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도 배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엘 시스테마는 1993년 유네스코로부터 국제음악상을 수상했고 엘 시스테마의 대표인 지휘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는 굿윌(Goodwill)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음악을 통한 평화 만들기에 힘써 왔다. 2016년 유엔총회의 공연을 계기로 엘 시스테마의 이런 음악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엘 시스테마의 창립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치겠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는 일은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우마이르 무쉬타크 리틀 아트는 예술교육기관으로서 예술, 특히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과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심어 준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이 중 파키스탄에서 국제아동필름페스티벌을 포함하여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기획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행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선생님도 함께 참여해 공동체 차원에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영화 제작, 사진, 애니메이션, 아트 등의 워크샵 등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예술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꿈을 실현하고 평화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린 나세르알라 팔레스타인은 지난 69년 동안 이스라엘에 의해 강제 점거를 당해 오고 있다. 1996년 발라타 난민 캠프를 설립해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의 목표는 나브카(1948년 이스라엘에 의해 강제 점거당한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기억하고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매년 청년들이 축제, 퍼레이드, 연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으로 돌아올 권리에 감사함을 느낀다.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 센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많은 프로젝트와 워크샵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유, 민주주의, 정의, 인권의 가치를 심어 주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팔레스타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니엘 린데만 한국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화는 영향력이 커 소프트파워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문화는 외교 수단으로 사용되는 좋은 도구이다. 문화적 교류 자체가 상호이해를 위해 중요하다. 우리가 외계인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적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은 세계화의 시대다. 옛날에는 소통 불가했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수단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 청년들은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3·1절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적인 변혁의 중심에 청년들이 있었다. 트럼프주의, 브렉시트가 만연한 민족주의의 바람 속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건강한 정치적 관심은 교육을 통해 배양된다. 건강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 있는 사람들도 지녀야 한다. 이를 통한 세대 간의 건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신화정 재주도좋아는 제주 앞바다의 쓰레기를 활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단체다. 재주도좋아 회원들은 한수풀 해녀학교에서 만났다. 해녀는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다. 우리는 16주 동안 매 토요일마다 해녀에게 수업을 받았다.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멋진 바닷속 풍경을 보는 것보다 쓰레기를 볼 때가 더 많았다. 이로부터 우리의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바다에는 특정 국가에 책임을 묻기 힘든 쓰레기가 끊임없이 물려온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고 제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비치코밍이다. 비치코밍은 바다에서 주운 것들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비치코밍을 통해 나오는 쓰레기는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찾고 있다. 우리는 전문가, 예술가와 함께 일하고 있고, 제주도 본토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지키는 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해녀들은 물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 그들처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매번 판단하고 집중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훈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후에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또 다른 해석, 문화는 노래와 춤으로 구성, SDG를 춤추고 노래하는 것(Singing and Dancing)으로 이해하는 건 어떨까?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청년들이 세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나눌 수 있었음. 다름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적 역량이라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됨.
- 청년들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활동과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분쟁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통해 앞으로 청년들이 평화를 이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줌. 그리고 미술, 음악 등의 문화로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는 그들의 긍정적인 기여가 기대됨.

여성 창의성 역량 개발을 통한 미래사회 변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World Women Inventors and Entrepreneurs Association

좌장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토론 **이가연** 우신코리아 대표
이정미 제이엠그린 대표
나경자 썬앤아이 대표
정리 **김민재**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주임

한미영 여성이 창의성을 활용하여 어떻게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가연 식용유 정제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화억제장치 등이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발명품은 현대 식생활에서 기름을 이용한 튀김요리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환경 오염 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발명품 중 하나인 에어벨트는 튀김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모아 자원화할 수 있어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식용유를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폐식용유 처리에 드는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다.

발명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주부로서 식용유를 사용하여 요리를 할 때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발명을 시작하게 됐다. 아이디어를 실제 발명품으로 만들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초기에는 발명품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으나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트랜스지방이 주목을 받으면서 발명품에 대한 관심도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품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됐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의 지원 덕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힘든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성으로서의 끈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정미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창의성이었다. 발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발견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IMF를 겪으면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느꼈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집중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발명품 또한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경제력 창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발명인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이루어 낼 수 있